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

리 동 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문화유산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불후의 고전적인 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창조적재능이 깃들어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첫째로,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이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민족적특성이 반영되어있는 민족문화유산은 매개 민족의 유구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이룩한 창조물이다.

우리 민족이 남겨놓은 문화유산들에는 대성산력사유적, 묘향산력사유적, 개성지구력사유적, 고려자기, 옛날책들을 비롯한 물질유산들과 함께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과 음악, 무용과 같은 비물질유산들도 있다.

이러한 민족문화유산들에는 력사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반영되어있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감정과 재능, 슬기와 용맹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들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연구하며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보이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는 모든 민족문화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을것이 아니라 그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만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반영되어있으며 오늘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지 않는것들도 적지 않게 들어있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유산들을 그대로 이어받을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야 한다.

실례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옛날책들을 오늘 우리 인민들이 볼수 있게 하자면 옛날책들이 가지고있는 내용과 형식에서의 부족점과 제한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편찬한 수많은 옛날책들이 전해지고있다.

옛날책들에는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민족적감정정서와 창조적재능을 비롯한 여러 분야

의 자료들이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반면에 봉건지배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뒤떨어지고 반동적이며 저속한 내용들도 들어있다.

옛날책들은 그 서사방식에 있어서도 《훈민정음》창제이후에 써온 국문으로 씌여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보고 리해하기 힘든 한문으로 씌여져있거나 국한문혼용으로 씌여져 있는것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옛날책들은 지난날 봉건지배계급이 한문만을 중시하다나니 대부분 한문으로 씌여져있다. 그리고 국문이나 국한문혼용체로 씌여진것이라 하더라도 지금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리해하기가 힘들게 되어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옛날책들을 리용하게 하자면 한문으로 씌여진 책들은 물론 모든 옛날책들을 우리 말 문화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해당 책들에 반영된 내용들의 제한성과 부족점들을 명백히 밝혀서 비판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옛날책들을 통하여 지난날 우리 인민들의 민족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할수 있게 하여 사람들에게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으며 민족의 고유한 풍습과 전통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 민족적정서와 미감에 맞게 계속 살려나가게 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둘째로, 력사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력사주의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전해오는 문화유산들을 당대의 력사적조건과 환경에 비추어 분석평가하며 보존한다는것이다.

민족문화유산들은 착취계급이 지배하던 계급사회에서 이루어진것으로서 여기에는 진보적인것과 함께 반동적이며 뒤떨어진것들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으며 비록 진보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하자면 해당 시대의 사회력사적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평가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실례로 17세기이후에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실학사상은 공리공담만을 일삼으면서 허송세월하던 봉건통치계급들의 그릇된 경향을 폭로비판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실지 도움을 줄수 있는 실속있는 정치,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할것을 주장한 사상이다.

이러한 실학사상을 내놓은 실학자들은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어느 정도 폭로비판하고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개혁사상을 내놓음으로써 일정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그들의 활동의 밑바탕에는 어디까지나 봉건지배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제도를 옹호하고 봉건적인 통치제도를 유지공고화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제도를 개혁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사상적지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실학사상과 실학자들에 대한 평가에서 당대의 사회력사적조건을 고려하여 그 진보성을 평가하여야 민족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력사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하는것도 마찬가지이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재부이다. 역사유적유물들도 해당 사회와 역사적시기의 특성에 맞게 옛모습을 살려서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자면 매개 유산들에 깃들어있는 민족의 우수성과 진보성을 당대의 사회력사적인 견지에서 비추어보고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시대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매개 유산들에 깃들어있는 민족의 우수성을 부정하면서 보잘것없는것으로 여기는 민족허무주의적인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민족허무주의는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고 자기의것은 덮어놓고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남의것만 쳐다보는 반혁명적인 태도와 관점이다.

민족허무주의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대하고 평가한다면 지난날 우리 민족이 남겨놓은 문화유산들은 어느 하나도 쓸모와 가치가 없는것으로 되고 남의것만 무척대고 좋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받아들이려는 사대굴종사상에 빠지고만다.

이와 함께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적인 태도와 관점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복고주의적인 태도와 관점은 지난날의것을 오늘의 현실과 인민들의 지향, 감정정서에는 관계가 없이 덮어놓고 되살려놓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통한 애국주의교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처럼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적인 태도와 관점은 다같이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없게 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므로 이러한 사상경향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그를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셋째로,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과학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유산들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한다는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룩하여놓은 문화유산들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역사적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외래침략자들의 략탈과 특히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적략탈, 미제에 의한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수많은 민족문화유산들이 소각, 류실, 파괴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치있는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것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가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족문화유산들을 발굴하는데서는 우선 해당 문화유산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발굴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면 해당 문화유산이 지난 역사적시기에 어떻게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당대 사회적조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필요한 과학적자료들을 충분히 조사연구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어떤 유적을 발굴복원하는 경우에도 유적이 없던 곳에 새로 만들어놓거나 자의대로 복구할것이 아니라 해당한 유적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연구한데 기초하여 본래의 위치에 해당 시대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나게 원상대로 발굴복원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평가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들을 발굴하는데서는 또한 해당 문화유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관리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인것만큼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원상그대로 복원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들을 보존관리하는데서도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단청색감과 보존처리용시약을 비롯한 필요한 자재들도 국내에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력사유적과 유물들을 비롯한 물질유산들과 비물질유산들을 자료기지화함으로써 누구나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정보교류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속에서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여왔다.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민족문화유산들이 우리 민족의 재보로 귀중히 보존관리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향취와 정서가 더욱 넘쳐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이 사업에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